

한국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 관한 연구

한 윤 옥*

목 차

1. 서 론	3. 시기별로 본 아동문학도서 표지의 특징
1.1 연구의 필요성	3.1 삽화의 종류
1.2 연구의 목적	3.2 삽화의 재료
1.3 용어의 정의	3.3 삽화의 대상물에 대한 묘사방법
2. 연구의 방법	3.3.1 삽화 대상물의 종류
2.1 가설의 설정	3.3.2 묘사의 정밀도
2.2 자료의 수집	3.3.3 대상물의 배치
2.2.1 조사대상 도서의 선정	3.3.4 대상물을 묘사하는 선의 사용법
2.2.2 표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방	3.3.5 색채의 사용
법과 기준	3.4 표지의 색조
2.2.3 자료의 분석방법	3.5 서명의 글씨체
	4. 결 론

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어린이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린이의 연령, 성, 인지발달 또는 정서적 발달단계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요소 등이며, 또 하나는 삽화, 활자의 크기, 면수 등 도서의 형태에 따른 것과 주인공, 이야기의 테마와 소재 등 도서의 내용적 요소들이다.

* 경기대학교 문현정보학과 부교수

본 연구자는 수년 전 “아동문학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¹⁾를 통하여 상기 요소들이 어린이의 도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도서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여러 구성요소 중 표지에 관한 것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도서의 표지는 책의 얼굴로서 어린이가 도서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인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서의 구성요소이다. 실제로 북디자이너 서 기훈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북 디자인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전정보 없이 책을 살때 표지디자인의 느낌에 의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29%로 저자를 보고 산다는 응답자나 출판사 이름을 보고 산다는 경우보다 많다. 또한 순수하게 표지만으로 책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나 된다.²⁾ 이것은 어린이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표지는 대부분의 경우 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서의 첫번째 구성요소로서 표지 인상에 의하여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책이라도 표지가 좋지 않아 어린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도서선택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표지에 관하여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도서선택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가 보다 더 확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1.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문학도서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경향과 표지에 대한 어린이의 기호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동도서의 표지는 어린이의 도서 구매욕이나 독서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중요

1) 한윤옥, 아동문학 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9.

2) 표지보고 책 고른 적 있다. 조선일보, 1991. 7. 10

한 요소로서 어린이의 기호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어린이의 기호는 생활환경이나 경제 사회적인 발전과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성향이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의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과 도약의 시기, 1980년대의 경제발전기 등과 같은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것은 어린이의 정서나 감각, 기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아동도서의 표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본다면 어린이의 도서선호와 관련된 표지의 영향요인을 간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앞으로의 표지의 경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3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 나타난 주요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가리키며, ‘어린이’라는 말과 혼용된다.
- (2) 아동도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읽혀질 것을 예상하여 출판된 도서를 말한다.
- (3) 아동문학 도서. 아동도서중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도서를 제외한 동요, 동시, 동화, 동극, 아동소설 등을 쓴 모든 도서를 가리킨다.
- (4) 저학년용 도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이 선호하여 읽는 도서를 가리킨다.
- (5) 고학년용 도서.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이 선호하여 읽는 도서를 가리킨다.

2. 연구의 방법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 그들은 도서의 표지를 비롯하여 그것의 형태적 요소들이나 내용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 이때 도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중 어린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표지이다. 다시 말하면 표지는 어린이들에게 그 책의 첫인상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의 표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보면 서명과 저자명을 비롯하여 역사나 편자명, 출판사 등을 알려주는 문자요소와 선과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삽화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어떤 책을 처음 접할 때에 그는 표지에 나타난 서명, 저자명 또는 출판사명 등을 표지의 삽화와 함께 보게 되고, 이것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어린이는 도서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곧 어린이가 표지 자체의 느낌만으로 도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표지 자체의 느낌과 함께 저자나 출판사에 대한 어린이의 평소의 선입관, 혹은 서명을 통하여 짐작한 주제에 대한 선호 여부 등이 작용하여 선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나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표지만을 보고 선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린이가 도서를 선택할 때 그것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지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의 도서선택행위를 표지와의 상관관계만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속하든 어린이가 도서를 선택할 때 표지에서 영향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고, 본 연구는 이 점에 유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동도서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에 대한 어린이들의 기호는 바뀔 것이고, 표지의 구성요소들은 당연히 그들의 기호를 반영시켜 다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아동문학 도서의 경우 더욱 당연히 요구된다. 또한 연구자는 아동도서의 발행량이 1985년을 전후하여 발행 부수나 종수면에서 모두 1위³⁾를 차지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특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동도서의 표지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가 과연 그러한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2. 1 가설의 설정

이 연구에서 검정하려고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즉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 그 책이 발행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66년부터 1975년, 1976년부터 1985년, 1986년부터 1993년⁴⁾

3)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 서울 : 구미무역, 1992. 119.

발행된 아동문학도서의 표지는 구성요소들의 표현 방법에서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2 자료의 수집

2. 2. 1 조사대상 도서의 선정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동 분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동도서를 조사한다. 1981년 9월에 개관된 이 도서관에는 1993년 4월 현재 64, 152권의 아동도서가 소장되어 있고,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것들이다.

개관이래 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열람실을 운영해 오다가 1991년 9월부터 가족 열람실로 개칭하고 어린이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자료열람을 비롯하여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4월 현재 가족열람실에는 1,337 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정확한 구분은 없지만 최근의 도서들은 가족열람실에 비치되어 있고, 이외의 도서는 보관용으로 보존서고에 비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1986년 이후의 것은 가족열람실에서, 1985년 이전의 도서는 보존서고에서 차출된다. 이때 선정도서의 기준은 각 시기별로 서명의 자모순과 예상되는 독자의 연령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보존서고와 가족열람실에서 해당되는 연도의 도서들을 서명의 가나다 순으로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누어 1권씩 뽑되 가능한한 같은 시기의 한 학년용 등과 같이 동일한 조사범위 안에서는 각 도서들의 출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면 1966~1975년의 시기에 발행된 저학년용 도서의 서명들을 자모순으로 뽑으면 '귀여운 왕자, 노래하는 섬, 단물샘 ...' 등과 같이 되며 이것들의 출판사는 각각 글벗집, 기독교문사, 보진재 등으로 모두 다르다. 각 시기별로 저학년용의 도서와 고학년용의 도서를 구분하여 1권씩 선정하는 이유는 예상 독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표지의 구성요소들을 다르게 표현하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차이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추출된 도서들을 저학년용 도서와 고학년용 도서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형태적 요소의 구분기준은 수년전에 이루어진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⁴⁾에 따라 정한다. 즉

4) 한윤우. 전계서. 55.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의 선호도서군에 속한 도서들의 형태적 요소의 평균값을 전후로 하여 구분기준으로 한다. 이때 형태적 요소중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삽화의 양 (저학년용 도서 : 60% 내외, 고학년용 도서 : 13% 내외) 과 도서의 부피 (저학년용 도서 : 60쪽 내외, 고학년용 도서 : 215 쪽 내외) 를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며, 활자의 크기나 행간의 폭 등은 참고로 한다. 또한 형태적 요소에 따라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도서는 내용적 요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판단하거나 가족열람실 사서의 도움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도서들은 1966~1975년의 시기에 발행된 저학년용 도서 14권과 고학년용 도서 14권, 1976~1985년의 시기에 발행된 저학년용 도서 14권과 고학년용 도서 14권, 1986-1993년의 시기에 발행된 저학년용 도서 14권과 고학년용 도서 14권으로 도합 84권이다. 각 시기별로 선정된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의 도서들은 해당시기 안에서는 학년별 구분없이 조사된다.

2. 2 표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방법과 기준⁵⁾

1) 삽화의 종류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화, 반사실화, 추상화, 반추상화, 만화, 민속화의 6종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러한 삽화 종류의 구분특징⁶⁾은 다음과 같다.

(1) 사 실 화—사물의 윤곽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 사진도 포함된다.

(2) 반사실화—사물의 윤곽을 실제보다 생략해서 표현한다.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것도 포함된다.

(3) 추 상 화—형상성과 대상과의 관계를 화가나름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상적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동화적인 요소가 많다. 기하학적인 무늬도 포함된다.

(4) 반추상화—표현주의 기법으로 사물의 중요한 부분이나 구조적인 질을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대로 왜곡하여 혹은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한다. 환

5) 표지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기준 결정과 조사과정에서의 실제적인 구분은 서양화가 김 정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하였다.

6) 한윤우, 전계서, 45.

상적인 그림도 포함된다.

(5) 만화—화가의 느낌이나 감정을 강조하여 그린다. 그들의 감정이 투영된 사물의 상황이나 특성을 유모러스한 형태로 표현시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웃음짓게 된다. 사실적 화풍으로 흐르면서 강조사향을 부각시키는 형태도 포함된다.

(6) 민속화—색조나 그림스타일, 분위기 등이 농경문화권을 연상시킨다. 색깔의 사용이나 원근법에서 어린이처럼 단순한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2) 삽화의 재료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사용된 그림의 재료를 말하면 다음과 같이 9구분하여 조사한다.

- (1) 수채화 혹은 구아시(gouach) 수채화
- (2) 유화 혹은 아크릴화(acrylics)
- (3) 펜화
- (4) 연필화
- (5) 크레용 혹은 파스텔화
- (6) 판화
- (7) 모자이크
- (8) 목화
- (9) 매직화

3) 삽화의 대상물에 대한 묘사방법

가. 대상물의 종류 : 삽화에 그려진 주요 대상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인물, (2) 동물, (3) 자연, (4) 이상의 것이 혼합된 것 등의 4종으로 구분한다.

나. 묘사의 정밀도 : 삽화에서 대상물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밀하게 원근법을 쓰고 세부적인 묘사를 하였는지 혹은 세부적인 묘사를 생략하고 단순한 윤곽처리나 묘사로 그쳤는지 등을 조사한다. 다음의 3구분을 한다.

(1) 생략 묘사법—삽화 대상물의 윤곽을 단순하게 처리하거나 간단한 묘사로 그친 경우를 말한다.

(2) 정밀 묘사법—삽화 대상물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물체의 형태를 정확한 원근법 등을 쓰면서 상세하게 그린다.

(3) 혼합 묘사법—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세히 묘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생략하거나 대강 묘사하고 만다. (1)과 (2)의 방법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대상물의 배치 : 표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삽화의 대상물을 배치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여백의 활용—표지에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개방적이고 관대한 느낌을 준다.

(2) 구분도—여러가지 상징물을 표지내에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꾀한다.

(3) 전체의 활용—이야기의 배경이나 구성, 등장물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기법을 이용하여 표지 전체를 꾸민다.

라. 선의 사용 : 삽화 대상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선을 사용한 방법⁷⁾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한다.

(1) 가는 선—물체를 그릴 때 미묘한 색감을 향상시키거나 복잡한 사물의 윤곽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가벼운 것을 묘사하거나 바쁜 동작을 묘사하기 위하여 가는 선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인다.

(2) 굵은 선—윤곽 형태를 대담하게 혹은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으로 흔히 등장물의 강함을 살리거나 형상의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하여, 또는 등장물의 움직임에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3) 복선—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선이 사물의 묘사를 위하여 사용된다.

(4) 특수효과를 위한 선의 사용—등장물에 입체감을 준다든지 명암을 나타내는 등의 특수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 색채의 사용 : 삽화의 대상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색은 흔히 독자의 주의를 끌거나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는 이야기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을 특히 과장하거나 억제시키기 위하여 혹은 삽화가 자신이 이야기의 내용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한다.

7) Carol J. Vacek, Beginning Fourth Grader's Self-Selection of Books for Recreational Reading by Bookjacket. Ed. D. Dissertation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2. 80-81.

- (1) 사실적인 색채—현실 세계에서의 물체나 사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근사한 색을 쓴다.
- (2) 반 사실적인 색채—사실적인 색채와 추상적인 색채의 중간상태로 볼 수 있다.
- (3) 추상적인 색채—현실 세계의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색과는 다른 색을 쓴다.

4) 표지의 색조

표지의 색조는 표지의 색에서 느끼게 되는 분위기를 말한다. 색조(tone)는 색채의 3속성중에 명도와 채도를 함께 부르기 위한 용어로서 이 색조에는 색상의 개념이 없으며 색상과 채도의 복합적 용어인 색도와도 구별된다.⁸⁾ 다시 말하면 색이름을 색상과는 상관없이 구분하는 방법으로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상태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색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색조의 분류에 의한 색이름은 한국 공업규격 색이름에서 명도와 채도의 상호관계로 이름지어져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공업규격의 등색상면에서의 명도와 채도에 관한 수식어표⁹⁾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표지의 색조를 조사한다.

- (1) 해맑고 연하고 밝음
- (2) 회색, 우중충한 색
- (3) 기본 색
- (4) 어둡고 검고 짙은 색
- (5) 새뜻한 색

5) 서명의 글씨체

표지에 나타난 서명의 글씨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명조체
- (2) 고딕체
- (3) 홀림글씨체
- (4) 기타—디자인 글씨체가 포함된다.

8)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 미진사, 1989. 174.

9) 상계서. 183.

2. 2. 3 자료의 분석방법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의 표현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법을 사용한다. 분석에는 Minitab 패키지를 이용한다.

3. 시기별로 본 아동문학 도서 표지의 특징

본 장에서는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적 특징을 밝혀내고, 아울러 그것들의 차이와 시대적 변화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수집된 자료를 처리, 해석하여 밝히려고 한다.

3. 1 삽화의 종류

선정된 조사대상 도서 84권의 표지에 나타난 삽화의 종류를 도서의 발행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삽화의 종류는 사실화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반사실화와 만화이고, 추상화가 가장 드물다.

표지에 나타난 삽화의 종류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가지 재미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사실화와 만화의 빈도수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뒤바뀐 것이 눈에 띈다. 1966~1975년, 1976~1985년의 두 시기에는 사실화가 만화보다 3배 이상 많은 반면, 1986년 이후에는 사실화가 7.2%로 급격히 줄고 만화가 이 시기에 발행된 도서의 표지를 50%나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만화에 대한 아동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면 다음의 시기에는 만화가 훨씬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성인도서의 경우에도 각종 주제에 대한 만화형태의 도서가 많이 나타나는 최근의 경향과 함께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표 1〉 삽화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삽화의 종류	분석 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사 실 화	수(권)	13	13	2	28(33.3%)*
	종렬비율(%)	46.4	46.4	7.2	
	횡렬비율(%)	46.4	46.4	7.2	100.0
반 사 실 화	수(권)	7	9	7	23(27.4%)*
	종렬비율(%)	25.0	32.1	25.0	
	횡렬비율(%)	30.4	39.1	30.4	100.0
추 상 화	수(권)	0	1	0	1(1.2%)*
	종렬비율(%)	0	3.6	0	
	횡렬비율(%)	0	100.0	0	100.0
반 추 상 화	수(권)	3	0	4	7(8.3%)*
	종렬비율(%)	10.7	0	14.3	
	횡렬비율(%)	42.9	0	57.1	100.0
만 화	수(권)	4	4	14	22(26.2%)*
	종렬비율(%)	14.3	14.3	50.0	
	횡렬비율(%)	18.2	18.2	63.6	100.0
민 속 화	수(권)	0	1	1	2(2.4%)*
	종렬비율(%)	0	3.6	3.6	
	횡렬비율(%)	0	50.0	50.0	100.0
해 당 없 음	수(권)	1	0	0	1(1.2%)*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6 $\alpha=0.01$ C.V=16.8 Chi Sq=19.858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 나타난 이와 같은 삽화종류의 변화와 시대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때 통계를 처리하는 기술상의 문제로서 기대도수가 5.0 이하가 되는 칸의 수가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의 적용에 문제가 생기므로 편의상 관련항목의 병합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항목의 병합처리는 양자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검정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삽화의 종류가 시대별로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

을 검정하기 위하여 추상화와 반추상화, 만화와 민속화 등을 병합처리하는 것은 검정하려고 하는 가설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표 1>에서 보면 자유도 6, 유의수준을 1%로 할 때 카이자승의 임계값이 16.8로 삽화의 종류가 시대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카이자승의 값 19.858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1%로 인정된다. 요컨대 표지에 나타난 삽화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볼 수 있다.

3. 2 삽화의 재료

표지의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를 조사대상 도서 84권을 분석하고 얻은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2>에서 보면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서 수채화 물감 혹은 구아시 수채화 물감이 전체의 73.8%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각각의 시기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다음으로 유화, 펜화, 크레용화가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1986년 이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삽화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1966~1975년, 1976년~1985년의 두 시기에는 수채화, 유화, 펜화, 크레용화 등 재래적인 4종의 재료를 이용한 표지 뿐인데 1986년 이후에는 한지를 이용한 모자이크, 둑화 등 한국적인 전통을 살린 도서의 표지나 매직파 같은 새로운 필기 도구를 이용한 표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통하여 표지의 꾸밈을 다채롭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표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삽화 재료의 다양화가 시대 변화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처리한 결과는 카이제곱 값이 3.179로 자유도 2, 유의수준 10%일 때의 임계값 4.61보다 작다. 그러므로 삽화재료가 시대별로 변화 없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로 기각할 수 없고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표 2〉 삽화의 재료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삽화의 재료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수채화 혹은 구아시 수채화	수(권)	23	21	18	62(73.8%)*
	종렬비율(%)	82.1	75.0	64.3	
	횡렬비율(%)	37.1	33.9	29.0	100.0
유화 혹은 아크릴화	수(권)	1	3	2	6(7.1%)*
	종렬비율(%)	6.5	10.7	7.1	
	횡렬비율(%)	16.7	50.0	33.3	100.0
펜화	수(권)	2	3	1	6(7.1%)*
	종렬비율(%)	7.1	10.7	3.6	
	횡렬비율(%)	33.3	50.0	16.7	100.0
연필화	수(권)	0	0	0	0
	종렬비율(%)	0	0	0	
	횡렬비율(%)	0	0	0	0
크레용 혹은 파스텔화	수(권)	1	1	1	3(3.6%)*
	종렬비율(%)	3.6	3.6	3.6	
	횡렬비율(%)	33.3	33.3	33.3	100.0
판화	수(권)	0	0	0	0
	종렬비율(%)	0	0	0	
	횡렬비율(%)	0	0	0	0
모자이크	수(권)	0	0	4	4(4.8%)*
	종렬비율(%)	0	0	14.3	
	횡렬비율(%)	0	0	100.0	100.0
목화	수(권)	0	0	1	1(1.2%)*
	종렬비율(%)	0	0	3.6	
	횡렬비율(%)	0	0	100.0	100.0
매직화	수(권)	0	0	1	1(1.2%)*
	종렬비율(%)	0	0	3.6	
	횡렬비율(%)	0	0	100.0	100.0
해당없음	수(권)	1	0	0	1(1.2%)*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2

 $\alpha=0.10$

C.V=4.61

Chi Sq=3.179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3. 3 삽화의 대상물에 대한 묘사방법

3. 3. 1 삽화 대상물의 종류

도서의 표지에 나타난 삽화의 주요 대상물을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삽화의 대상물은 인물이 6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물, 동물, 자연이 혼합된 것으로 전체 대상도서의 23.8%를 차지한다. 인물이 표지삽화의 주요 대상물이 되는 비율은 각 시기별로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아동 문학 작품의 주요 등장물이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지 삽화의 대상물이 시대에 따라 변하였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자유도 4, 유의 수준 10%일 때의 카이자승 임계값이 7.78로 양자간의 관계를 검정한 카이자승의 값 4.852보다 커서 삽화의 대상물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10%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 3> 삽화 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삽화 대상물의 종류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인 물	수(권)	18	18	19	55(65.5%)*	
	종렬비율(%)	64.3	64.3	67.9		
	횡렬비율(%)	32.7	32.7	34.6	100.0	
동 물	수(권)	0	1	3	4(4.8%)*	
	종렬비율(%)	0	3.6	10.7		
	횡렬비율(%)	0	25.0	75.0	100.0	
자 연	수(권)	1	1	2	4(4.8%)*	
	종렬비율(%)	3.6	3.6	7.1		
	횡렬비율(%)	25.0	25.0	50.0	100.0	
혼 합	수(권)	8	8	4	20(23.8%)*	
	종렬비율(%)	28.6	28.6	14.3		
	횡렬비율(%)	40.0	40.0	20.0	100.0	
해 당 없 음	수(권)	1	0	0	1(1.2%)*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10$

C.V=7.78

Chi Sq=4.852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3. 3. 2 묘사의 정밀도

삽화의 대상물을 그리기 위하여 정밀한 묘사방법을 썼는지 혹은 대담한 생략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의 사용경향에 시대적 흐름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4> 묘사의 정밀도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묘사의 정밀도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생략 묘사법	수(권)	13	10	23	46(54.8%)*
	종렬비율(%)	46.4	35.7	82.1	
	횡렬비율(%)	28.3	21.7	50.0	100.0
정밀 묘사법	수(권)	11	13	2	26(30.9%)*
	종렬비율(%)	39.3	46.4	7.2	
	횡렬비율(%)	42.3	50.0	7.7	100.0
혼합 묘사법	수(권)	3	5	3	11(13.1%)*
	종렬비율(%)	10.7	17.9	10.7	
	횡렬비율(%)	27.3	45.4	27.3	100.0
해당 없음	수(권)	1	0	0	1(1.2%)*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01$ C.V=13.3 Chi Sq=14.535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률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동도서의 54.8%에 해당되는 도서의 표지에서 생략묘사법이 쓰이고, 30.9%의 도서에서 정밀묘사법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묘사방법의 사용에 시대적 경향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세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1966~1975년, 1976~1985년의 두 시기에는 생략묘사법과 정밀묘사법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의 시기에서는 생략묘사법이 82.1%의 도서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정밀한 묘사방법은 7.2%의 도서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앞의 두 시기에서는 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쓰이다가 1986년 이후의 시기에 정밀한 묘사방법이 크게 퇴조하고 대담한 생략방법이 많이 쓰이는 것은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의 영향이라고 본다.

대상을 묘사의 방법과 시대적인 흐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검정한 결과는 자유도 4, 유의수준 1% 일때의 카이자승 임계값이 13.3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검정한 카이자승값 14.535 보다 작다. 그러므로 양자간에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상을 묘사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3. 3. 3 대상물의 배치

삽화의 대상물을 표지에 어떻게 배치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5> 대상물의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삽화 대상물의 배치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여백의 활용	수(권)	6	4	3	13(15.5%)*
	종렬비율(%)	21.4	14.3	10.7	
	횡렬비율(%)	46.2	30.8	23.1	100.0
구 분 도	수(권)	7	6	1	14(16.7%)*
	종렬비율(%)	25.0	21.4	3.6	
	횡렬비율(%)	50.0	42.9	7.1	100.0
표지전체의 활용	수(권)	14	18	24	56(66.7%)*
	종렬비율(%)	50.0	64.3	85.7	
	횡렬비율(%)	25.0	32.1	42.9	100.0
해당 없음	수(권)	1	0	0	1(1.1%)*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10$ C.V=7.78 Chi Sq=8.206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률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도서 표지에서 삽화의 대상물을 배치하는 방법으로서 표지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즉 전체의 66.7%에 해당되는 도서에서 표지 전체를 활용하여 삽화의 대상물을 배치하고 있다. 여백을 남긴다든지 구획을 나누어 대상물을 배치하는 방법은 각각 전체의 15.5%와 16.7%를 차지하여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지전체를 활용하여 삽화의 대상

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각각의 시기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66~1975년에 50%, 1976~1985년에 64.3%, 1986~1993년에 85.7%로 표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각 시기별로 크게 증가되고 다른 두 방법은 역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삽화의 대상물을 표지에 배치하는 방법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검정한 결과 자유도 4, 유의수준 10%일 때 카이자승의 임계값이 7.78로 양자간의 관계를 검정한 카이자승의 값 8.206보다 작다. 그러므로 대상물의 배치방법이 시대별로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10%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삽화의 대상물을 표지에 배치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3. 3. 4 대상물을 묘사하는 선의 사용법

삽화의 대상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선을 사용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6> 선의 사용법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선의 사용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가는 선	수(권)	7	7	6	20(23.8%)*
	종렬비율(%)	25.0	25.0	21.4	
	횡렬비율(%)	35.0	35.0	30.0	100.0
굵은 선	수(권)	5	7	4	16(19.0%)*
	종렬비율(%)	17.9	25.0	14.3	
	횡렬비율(%)	31.2	43.8	25.0	100.0
복 선	수(권)	1	2	1	4(4.8%)*
	종렬비율(%)	3.6	7.2	3.6	
	횡렬비율(%)	25.0	50.0	25.0	100.0
특수효과를 위한 선의 사용	수(권)	13	12	17	42(50.0%)*
	종렬비율(%)	46.4	42.8	60.7	
	횡렬비율(%)	30.9	28.6	40.5	100.0
해당없음	수(권)	2	0	0	2(2.4%)*
	종렬비율(%)	7.1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10$ C.V=7.78 Chi Sq=2.254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률

위의 표에서 보면 특수한 효과를 얻기 위한 선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묘사한 표지삽화는 조사대상 도서의 50%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은 가는 선을 주로 사용한 삽화로서 23.8%의 도서에서 발견된다. 각 시기별로 특별히 발견되는 특성은 없다.

시대의 변화와 대상물을 묘사하기 위한 선의 사용에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검정한 결과 카이제곱 값이 2.254로 자유도 4, 유의수준 10%에서의 카이자승 임계값인 7.78보다 작다. 그러므로 양자간에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고 이들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3. 5 색채의 사용

삽화의 대상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색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7〉 대상물의 색채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삽화 대상물의 색채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사실적 색채	수(권)	16	17	8	41(48.8%)*
	종렬비율(%)	57.1	60.7	28.6	
	횡렬비율(%)	39.0	41.5	19.5	100.0
반사실적 색채	수(권)	9	10	17	36(42.9%)*
	종렬비율(%)	32.1	35.7	60.7	
	횡렬비율(%)	25.0	27.8	47.2	100.0
추상적 색채	수(권)	2	1	3	6(7.1%)*
	종렬비율(%)	7.1	3.6	10.7	
	횡렬비율(%)	33.3	16.7	50.0	100.0
해당없음	수(권)	1	0	0	1(1.2%)*
	종렬비율(%)	3.6	0	0	
	횡렬비율(%)	100.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10$ C.V=7.78 Chi Sq=7.653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표 7〉에서 보면 삽화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색채는 사실적 색채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42.9%를 차지하고 있는 반사실적 색채이다. 추상적 색채는 조사대상 도서의 7.1%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 색채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삽화의 종류에서 추상화가 가장 적게 발견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 사실적인 색채의 사용은 1986년 이후 앞의 두시기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되는 반면에 반사실적 색채가 거의 배이상의 증가를 보인다.

색채의 사용과 시대변화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카이자승의 값이 7. 653으로 자유도 4, 유의수준 10%일 때의 임계값 7. 78보다 작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4 표지의 색조

우리나라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색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8〉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8〉 표지의 색조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표지의 색조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해맑고 연하고 밝은 색	수(권)	4	5	13	22(26.2%)*
	종렬비율(%)	14.3	17.9	46.4	
	횡렬비율(%)	18.2	22.7	59.1	100.0
밝은 회색, 우중충한 색	수(권)	6	12	7	25(29.8%)*
	종렬비율(%)	21.4	42.8	25.0	
	횡렬비율(%)	24.0	48.0	28.0	100.0
기본색	수(권)	10	9	6	25(29.8%)*
	종렬비율(%)	35.7	32.1	21.4	
	횡렬비율(%)	40.0	36.0	24.0	100.0
어둡고 검고 짙은 색	수(권)	8	2	2	12(14.3%)*
	종렬비율(%)	28.6	7.2	7.2	
	횡렬비율(%)	66.6	16.7	16.7	100.0
새뜻한 색	수(권)	0	0	0	0
	종렬비율(%)	0	0	0	
	횡렬비율(%)	0	0	0	100.0
계		28	28	28	84(100.0%)*

df=6 $\alpha=0.05$

C.V=12.6 Chi Sq=16.156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위의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는 명도가 중간단계인 색조부터 그 이상의 밝은 계열의 색조가 많이 쓰이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해맑은 색조, 밝은 회색조, 기본색조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해맑은 색조가 밝은 회색조나 기본색조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나는 반면 어둡고 검은 색조는 1966~1975년의 첫시기에만 많이 쓰이고 1976년 이후에는 절대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생활환경을 밝게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함께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새뜻한 색조의 표지는 전혀 없다.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색조와 시대와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자유도 6, 유의수준 5%일때의 임계값이 12.6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검정한 카이제곱의 값 16.156보다 작아 유의하다. 그러므로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색조와 시대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5%로 인정된다. 요컨대 표지의 색조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3. 5 서명의 글씨체

표지에 나타난 서명의 글씨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9〉 서명의 글씨체에 대한 분석 결과표

시기별 구분 서명의 글씨체	분석방법	1966~1975	1976~1985	1986~1993	계
명 조 체	수(권)	7	16	7	30(35.7%)*
	종렬비율(%)	25.0	57.1	25.0	
	횡렬비율(%)	23.3	53.4	23.3	100.0
고 덕 체	수(권)	15	8	10	33(39.3%)*
	종렬비율(%)	53.6	28.6	35.7	
	횡렬비율(%)	45.5	24.2	30.3	100.0
흘림글씨체	수(권)	3	1	4	8(9.5%)*
	종렬비율(%)	10.7	3.6	14.3	
	횡렬비율(%)	37.5	12.5	50.0	100.0
기 타	수(권)	3	3	7	13(15.5%)*
	종렬비율(%)	10.7	10.7	25.0	
	횡렬비율(%)	23.1	23.1	53.8	100.0
계		28	28	28	84(100.0%)*

df=4 $\alpha=0.05$ C.V=9.49 Chi Sq=11.478

* 전체 도서수에 대한 백분율

위의 표에서 보면 서명의 글씨체로 고딕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다음으로 명조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6~1975년의 시기에는 고딕체가 53.6%로, 1976~1985년에는 명조체가 57.1%로 그 시기에 발행된 절반 이상의 도서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1986~1993년에는 어떤 한 종류의 글씨체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이것 또한 표지를 정형화 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최근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서명의 글씨체와 시대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유도 4, 유의수준 5%일 때의 카이자승 임계값이 9.49로 양자간의 관계를 검정한 카이제곱값 11.478보다 작다. 그러므로 서명의 글씨체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요컨대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5%로 인정되고 서명의 글씨체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발행된 아동문학도서의 표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세 시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아동문학도서의 표지가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과 변화경향, 표지에 대한 어린이의 기호를 밝힐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 30년간 한국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 가장 많이 나타난 삽화의 종류는 사실화이고 다음이 반사실화와 만화의 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만화종류의 삽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만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삽화의 종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 과거 30년간 표지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수채화 물감(구아시 수채화 물감 포함)이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채화 물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재료가 표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는 경향이다.

(3) 한국의 아동문학도서 표지에 삽화대상물로서 인물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4) 한국의 아동문학도서 표지에서는 삽화의 대상물을 정밀하게 그리기 보다는 생략하는 묘사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과거 20년간에는 정밀한 묘사방법과

생략 묘사법이 거의 비슷하게 쓰였지만 최근에는 대담하게 생략하는 방법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경향이다. 대상물을 묘사하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5) 한국의 아동문학도서 표지에서는 표지 전체를 활용하여 삽화의 대상을 배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백을 남긴다든지 구획을 나누어 대상을 배치하는 방법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며 표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삽화의 대상을 표지에 배치하는 방법과 시대의 흐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6) 한국의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서는 삽화의 대상을 묘사할 때 특수한 효과를 얻기위한 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묘사하는데 있어 어떤 종류의 선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경향은 없다.

(7) 표지삽화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실적 색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근소한 차이로 반사실적 색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20년에 비하여 사실적 색채의 사용이 많이 감소되는 반면 반사실적 색채의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한국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색조는 밝은 회색조와 기본색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맑은 색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밝은 회색조나 기본색조가 퇴조하는 반면에 해맑은 색조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지의 색조와 시대의 변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9) 한국 아동문학도서의 표지에 있는 서명의 글씨체는 고딕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명조체가 많다. 특히 고딕체는 1966~1975년의 시기에, 명조체는 1976~1985년의 시기에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어느 한종류의 글씨체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는 경향이다. 서명의 글씨체와 시대의 변화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성립된다.

참 고 문 헌

- 박 은주.『색채조형의 기초』서울 : 미진사, 1989.
- 한 윤옥.『아동문학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를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89.
- Vacek, Carol J. *Beginning Fourth Graders' Self-Selection of Books for Recreational Reading by Bookjacket*. Ed. D. Dissertation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ookjacket of Children's Books

Yoon-Ok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ookjacket of children's books in Korea and (b) to observe general directions of the changes of those characteristics. For that purpose, children's books are gathered in alphabetical order of titles which has been published in the past 30 years and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 'books of 1966-1975', 'books of 1976-1985' and 'books of 1986-1993' according to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ose books.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bookjackets belonging to these three groups are analyzed and compared.

Main findings and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

- (1) The style of illustration which has been appeared very often on the bookjacket of children's books is realistic art style. But a new tendency is that cartoon art style is above everything else.
- (2) The media which has been commonly used for illustration is watercolor. A new tendency is that various media is used for illustration.
- (3) People have been most commonly used as characters of illustration, and this tendency is continued from the past.
- (4) Visual representation of characters is usually simplified, and simple outlines is used for objects. The latest tendency is the same.
- (5) Visual content is arranged within bookjacket illustration as a whol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onggi University.

and this tendency is continued.

(6) Lines for special emphasis are commonly used in depicting objects within bookjacket illustration.

(7) Realistic color has been most commonly used in depicting objects within bookjacket illustration. But the tendency is turned into unrealistic color.

(8) Light grayish and strong as tone have been commonly used for bookjacket. A new tendency is that pale as tone is above everything else.

(9) Gothic type has been commonly used for title within bookjacket. A new tendency is that various types are used for titles.